메시지 5

아가의 다섯 번째 단계 — 주님의 일에 동참함

성경: 아 7:1–5, 11–12

Ⅰ. 솔로몬은 많은 포도원의 주인이고(아 7:12), 이 포도원들을 가꾸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술람미는 마땅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과 영광인가(고전 3:9, 고후 6:1상)!

Ⅱ.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미덕들로 표현되는 신성한 생명의 모든 속성들로 장비되는 데 달려 있다. 그 영은 연인의 미덕들을 살펴보시는데, 이 미덕들은 그녀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했다는 표시이며 그녀에게 주님과 함께 일할 자격을 준다 — 아 7:1–5, 비교 고후 1:12, 2:14–17, 11:10상, 살전 2:1–12.

A.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갈 4:19, 엡 3:17상, 4:16.

1.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이었다 — 고전 15:10상.
2. 그 결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고전 15:10하.
3.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사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이 되셨다.
4.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누림이 되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이었다 — 엡 3:2.

B. 아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통치자의 딸'(7:1)로 불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그분의 왕의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 준다(롬 5:17).

C. 그 영은 복음 전파(신을 신은 걸음걸이)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신다 — 아 7:1, 롬 10:15.

1. 복음 전파는 땅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준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는 것'은 교회가 착용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한 부분이다 — 엡 6:13, 15.
2.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엡 2:13–17).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이다.
3. 이렇게 신을 신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견고한 기초를 위한 화평은 그리스도이다 — 엡 6:14.

D.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에 관하여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의 예표에서 상아는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녀의 의지를 상징하는 그녀의 목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다 — 아 7:4.

E. 이어서 주님은 그녀의 눈에 대해 말씀하신다.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아 7:4.

1. 아가 1장 15절에서 그녀의 눈은 비둘기의 눈에 비유되었지만, 7장 4절에서 그녀의 눈은 연못에 비유된다. 비둘기의 눈은 영적이지만, 연못 같은 눈은 빛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온 우주를 볼 수 있을 만큼 커지고 넓어졌다.
2. 이 연못은 성문 가에 있다. 성문은 들어오고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을 위한 소통을 상징한다. 이러한 소통을 갖는 것은 우리의 넓혀진 시야에 달려 있다. 이 연못은 반사하는 연못인데, 이것은 그녀의 시력에 빛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매우 넓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의 일을 보고 돌볼 뿐 아니라, 온 땅과 온 우주에서의 주님의 권익을 돌볼 것이다.

F. 주님은 그녀의 '코가 레바논 망대 같다'고 하시며 그녀를 높이 평가하셨다 — 아 7:4.
1. 레바논 망대 같은 코는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에게 높고 예리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리석게 사랑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지식과 예민한 지각이 넘치는 사랑으로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 준다.
2. 냄새를 맡는 기능은 성숙한 이들에게서만 발견된다. 이 감각은 밖으로 한 말이나 보이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에서 오는 내적인 능력으로서 우리가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준다.
3. 이 영적인 직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식별은 이성이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도 내적인 정확한 느낌에 의한 것이다. 이 느낌에 의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
4. 동시에 이 후각을 통해 우리는 나쁜 냄새도 식별할 수 있다. 많은 가르침이 틀린 것으로 간주될 수 없고, 많은 사람에게서 잘못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언가가 빗나갔다는 것을 감지한다.
5. 우리는 주님의 종에게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참되지 않으며 주님과 조화되지 않음을 느낀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6. 레바논 망대 같은 코는 코의 높이와 예리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코가 일그러져 있거나 납작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에서 감지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 — 아 7:4, 레 21:18(1901년판 미국 표준역 성경 참조).
7. 어떤 결함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잃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다면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21:17-21.

G. 그 영은 하나님을 위해 강한(갈멜산, 비교 왕상 18:19-39) 연인의 생각과 의도(머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자줏빛)을 위하고 왕이신 사랑하는 분을 사로잡는(매이는구나) 그녀의 헌신을 위한 복종과 순종(그녀 머리의 머리채, 비교 민 6:5상)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신다(아 7:5).

Ⅲ.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 마을들에서 묵어요. /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꽃망울이 터졌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아 7:11-12)

A. "마을들에서 묵어요." — '마을들'은 복수이다. 그녀는 한 곳에 제한되지 않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는 주님의 체류하는 본성을 완전히 취했다. 그녀는 주님을 따라 잃어버린 양들과 상처 입은 이들을 찾아다닌다.

B.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에 머물며(마을들에서 묵음) 온 세상('들')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파적인 사람이 아님을 가리킨다. 그녀는 일을 공개해 다른 이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그녀도 다른 곳에 가서 머물 수 있다. 이것이 한 몸 안에서 한 일을 지키는 것이다.

C. '일찍'은 그녀가 주님의 일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침 일찍 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으름은 주님의 생명의 특징이 아니다. 참으로 영적인 이들만이 부지런할 수 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시간을 쓰는 데서 나타난다 — 엡 5:16, 골 4:5.

D.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고전 3:9상, 고후 6:1상).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이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 술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아 8:11) 곧 온 땅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이들을 돌본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단지 한 도시만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해야 함을 보여 준다.

F. 우리는 반드시 온 세상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바울은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고서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끎으로써 그러한 일을 하였다 — 롬 16:1-27, 고전 12:24-25상.

G. 연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분은 교회들(포도원들) 안에서 다른 믿는 이들이 움이 돋고, 꽃망울이 터지고, 꽃이 피도록 부지런히 일한다. 주님의 연인은 주님의 일 가운데서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라고 말한다 — 비교 아 7:12.

H.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일을 하는 곳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 막 12:30.

Ⅳ. 첫째가는 일은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다(계 2:4-5).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하여(계 2:4)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릴 때(골 1:18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요 21:15-17, 엡 4:16, 고후 5:14-15, 20).

A. 어떤 믿는 이가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외적인 일의 공허함에서 구출받아야 한다. 그는 단지 사람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신 일은 하지 않았다 — 아 1:6하-8.

B. 믿는 이가 자아에서 구출될 때, 그의 마음은 개인주의적인 일에서 구출되어 주님의 일로 이끌리며, 모든 성도들의 상태와 심지어 가장 미성숙한 믿는 이들의 상태도 그의 관심을 끌며 그가 주목하는 대상이 된다.

C.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주님의 일을 주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통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D. 그녀의 모든 수고는 '사랑의 수고'(살전 1:3)이다. 이러한 수고는 그녀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요일 4:19, 롬 5:5).

Ⅴ.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고전 15:58)

A. 오직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일들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다 — 고전 3:12.

B. 주님의 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에 의한 것이다.

C. 이렇게 수고할 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게 될 것이다 — 고전 3:12.

© 2026 Living Stream Ministry